



청년세대의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 연구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공감과 재미 요소를 중심으로

홍경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A Study on the Television Drama Reception among the Youth

Focusing on the elements of interest and sympathy in watching JTBC drama <Itaewon Class>* **

Kyung Soo H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ulture & Contents, Ajou University

Young-Hee Chung****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 Cultur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Korean youth in their twenties consumed the JTBC drama <Itaewon Class>, by analyzing the elements of interest and sympathy activated in the participants' reviews of the drama. We found that Korean youth sympathized with the drama by ① the themes and messages that are tailored to the youth ② the totality of drama directing, and ③ the internalization of emotions connected to actual experiences. In terms of the themes and messages tailored to the youth, the drama goes beyond accusing the conventions of the older generations, embracing the framework of growth narrative punishing the establishment. It seems that the sense of loss felt by the precar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has developed into an emotion of 'anger,' and, in turn, has developed into a narrative of 'revenge'. As for support for the younger generation, it was understood that they experienced the support of 'we can do it' message, while watching the experiences of success through the solidarity with the peers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old system. Sympathy towards the minority sentiment and diversity advocacy seems to be linked to that shared by the younger generation as a minority social group. The young people not only accepted the narrative of a drama, which seems to be a kind of fantasy, but also, engaged in a tug-of-war to decode the meaning of the texts between the real reality and the fantasy created by the drama. Therefore, it can

*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정착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본 연구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준 연구참가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hongks@ajou.ac.kr

**** yeongsol@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be said that young people sympathized with the drama based on their current positions and accepted the drama independently. As for the totality of drama directing, opposite opinions about the dramatization of the webtoon, the use of real-world places that can be experienced, the effect of audible interaction through the OST, and the active use of communication media were meaningful elements for the youth. The participants internalized the content emotionally by linking the episodes of the drama with their own real experiences, summarized as empirical and emotional levels of empathy, feeling of distance from real experiences and resonance reactions within the generation. The position of webtoons in Korean popular culture is ever growing, and the tendency to turn webtoons into drama productions will only increase.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are accepting dramas not just as fictional fantasy, but as texts that are closely compared with their daily lives. Drama producers also employ a complex strategy using various media platforms. As such,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lexity of the platfor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udience's negotiations and interpretations rather than to focus on the television drama text itself.

Keywords: TV drama, audience analysis, young generation, webtoon drama, totality strategy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말로 기성세대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로 청년세대의 유약함을 지적한다. ‘3포 세대’, ‘N포 세대’¹⁾, ‘88만원 세대’ 등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이들 세대가 노출된 생활환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열정페이’, ‘갑질’ 등의 열쇳말은 청년들이 대면하는 노동환경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새로운 세대를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²⁾라는 표현에는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시선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이라고 부르던, 이들은 공통적으로 편의점, 카페, 포차에서의 ‘혼술혼밥’에 익숙하고 일상에서 ‘소확행’을 실천하며 위안을 찾는다.

청년세대의 담론은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대중적인 미디어 양식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오랫동안 청년세대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핵심 표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 청년은 시청률과 광고 제품 구매력 면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부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년 드라마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1987~1991, KBS1), <내일은 사랑>(1992~1994, KBS2), <우리들의 천국>(1990~1994, MBC), <광끼>(1999, KBS2), <카이스트>(1999, SBS), <남자 셋 여자 셋>(1996~1999, MBC), <논스톱>(2000~2005, MBC)까지 이어졌으며, 대학생 중심의 낭만적 삶을 묘사한 드라마가 대부분이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과 비주류 청년이 드라마 속에서 적극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에 들어와서이다. 2000년대 중반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드라마에서는 20대의 판타지를 계속 이야기할 힘이 없었다. 주춤했던 청춘 이야기를 다시 추동시킨 것은 도서 「88만원 세대」(2007)다.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묘사가 나타났는데,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2011, MBC)에서 88만원 세대의 상징적 인물이 등장했다. 또한 KBS 드라마 스페셜로 방송된 <달팽이 고시원>(2010), <습지생태보고서>(2012), <노랑진역에는 기차가 서

1) 엄밀한 사회과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청년세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용어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거기에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거기에 더해 희망/취미·인간관계를 포기한 ‘7포 세대’에서 나아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서연주, 2019).

2)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가 적고 노동의 질 또한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평균 소득이 낮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성의 세대는 이들에 대해 게으르고,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며, 무책임하다고 평가내리는 경향이 있다.

지 않는다) (2015) 등이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담아냈다(정시우, 2020). 주로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들은 웹툰만의 고유한 감성과 청년들의 주변부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이후 이러한 드라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 (2014, tvN)이 청년세대의 비정규직 노동환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부각되었다. <혼술남녀> (2016,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2017, tvN)를 거쳐 <쌈, 마이 웨이> (2017, KBS2)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 호평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이태원 클라쓰>가 유사한 맥락에서 주목받았다.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청년세대의 성장을 다룬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복수가 이야기의 주요 소재여서 통속극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세대 간 경쟁과 충돌이 주요 서사를 이루고 있어서 세대 갈등의 서사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불황과 양극화의 영향으로 과거처럼 낭만적이고 밝기만 한 청춘물은 사라지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세대의 심정이 반영된 <이태원 클라쓰> 같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하재근, 2020). <이태원 클라쓰>는 특히 2030 세대에겐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드라마 속에 '꼰대'와 '갑질'에 맞서는 2030 세대가 투영되었으며,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사이다식 언행'이 2030 세대를 대리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전승현, 2020. 3. 12). 4·50대에게도 인기가 있었지만,³⁾ 2030 세대의 반응은 보다 적극적이었다. 남자 주인공인 박새로이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이태원의 촬영장소를 찾아가고, 드라마 OST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등 주인공과 동년배로서 드라마를 자기 세대의 담론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도 있었다.⁴⁾

연구자들은 <이태원 클라쓰>를 시청한 청년들로부터 직접 들은 의견과 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된 견해를 접하면서 그들의 감정에서 '분노'에서 기인한 '복수'나 '응징'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태원 클라쓰>가 실제 청년의 감정에 비교적 솔직하게 접근했다고 판단하여 드라마의 서사에 관심을 가졌고, 20대 청년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20대가 <이태원 클라쓰>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드라마의 공감과 재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청년세대가 <이태원 클라쓰>를 보면서 공감하고 재미를 느낀 지점은 어디인지, 공감의 배경이 된 개인적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공감하지 못한 요소와 그 원인은

3) 흡수저 남성 주인공의 성공 이야기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기성세대의 성공 판타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젊음을 상징하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그들에게 만들어준 로망 때문이라는 것이다(황소영, 2020. 3. 12).

4) 드라마를 통해서 원작 웹툰의 인기도 급부상했는데, 4억의 조회수와 2천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기록한 것은 드라마가 특히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방증한다(안호천, 2020.12.30).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감과 재미 요소에 주목한 이유는 <이태원 클라쓰>가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도드라지게 내세우고 있어서 메시징성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 격차의 결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청년의 상처인 자존감의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난한 현실 자체보다 그 때문에 삶의 다른 가능성이 제한되고 존엄마저 무시당하는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세계다(김선영, 2020. 9.25)⁵⁾. 이 드라마를 분석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요청하는 청년세대의 내면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현실의 20대가 그들의 정서에 밀착한 드라마에 어떻게 공감하고 재미를 느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청년 문화의 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향후 등장하게 될 청년 소재 드라마의 방향에도 의미있는 암시를 줄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논의

1) 텔레비전 드라마와 청년세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청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1980년대 말부터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1987, KBS1,2)는 의대생의 꿈과 사랑을 다루었으며, 이후 청춘 드라마의 전형이 되었다. 청년에 대한 그러한 묘사는 <첫사랑>(1996, KBS2)⁶⁾까지 연결되어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이 등장한 드라마는 대부분 대학생이라는 고학력을 배경으로 학업, 사랑·연애를 다루고 있어서 해당 세대의 보편적 이야기와 감성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드라마는 청년 대학생의 풋풋함, 희망, 도전 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양산했으며, 청년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다루었다(송아현·백선기, 2018).

대학생이 아닌 청년과 비주류 청년의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았다. 드라마 방영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드라마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장그래', '미생' 신드롬을 만들었던 드라마 <미생>(2014, tvN)은 비독기사라는 꿈이 좌절된 청년과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로맨스나 신화적 요소 없이 청

5)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심리학적 조작(psychological manipulation)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과묵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Wikimedia Foundation, Inc., 가스라이팅, n. d.).

6) 1996년 9월 7일부터 1997년 4월 20일까지 방영한 KBS 2TV의 주말 드라마로서, 총 66부작이다. 첫 방송의 시청률이 평균 35.1%였으며, 방영 한 달 만에 시청률 40%를 넘었다. 첫 방송 이래 8개월 간 주간 시청률 1위였으며 마지막회는 65.8%로, 이는 시청률 조사 이래 최고 시청률이었다(Wikimedia Foundation, Inc., 첫사랑(1996년 드라마), n. d.).

년세대의 노동 현실을 현실적으로 조명했다. <혼술남녀>(2016, tvN)는 로맨틱 코미디 요소가 있지만 안정된 직업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현실과 직업인으로서의 갈등과 성장과정, 그 과정에서의 '소확행', '혼술'을 보여줌으로써 청년의 열망과 고단함을 드러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2017, tvN)는 세입자가 필요한 '하우스푸어' 비혼주의자와 살 집이 필요한 드라마 보조 작가 간의 계약결혼과 로맨스를 다룬다. 이 드라마는 모두 청년세대의 경제적 현실을 조명한 것으로, <미생>과 <혼술남녀>가 취업과 노동 문제에 착목했다면,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주거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낭만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청년 드라마 서사와 달리 생존 투쟁과 경제적 현실에 주목한 드라마라는 공통점이 있다. <청춘시대 1,2>(2016/2017, JTBC)는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에 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 연애, 아르바이트,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며, 데이트 폭력을 묘사하기도 했다. <식샤를 합시다 1,2,3>(2013~2018, tvN)은 '1인 가구 먹방 드라마'를 표방하며 혼자 사는 청년들의 식생활을 다루었다. 이들 드라마의 부상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감수성을 가진 세대의 출현을 의미하며, 그 근저에는 웹툰이 있다.

청년 소재 드라마가 성장한 만큼 청년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드라마 텍스트 자체가 연구 대상인 것은 드라마 속 청년세대의 현실과 위기에 대한 재현 연구(송아현·백선기, 2018), 청년세대와 미디어 재현의 상관성 연구(송아현, 2018), 드라마 속 청년세대를 통해 우리 시대의 감정풍속도를 추론한 연구(서연주, 2019) 등이 있고, 수용(자)연구에서는 드라마의 지역 언어가 해당 지역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홍정수, 2019), 수용자의 해석적 위치와 노동 현실에 대한 의미생산 과정 연구(박찬주, 2016)가 있다. 그 외 청년·취업 세대 드라마의 장르적 특징 연구(김영인, 2017)가 있으며, TV드라마와 웹툰에 반영된 갑을 관계를 분석하여 청년세대 문제를 간접적으로 조망해낸 연구(이종승, 2014)도 있다.

청년이 소재인 개별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⁷⁾ 하지만 대부분이 텍스트 분석에 집중되어있다. 텍스트 분석은 생산자의 의도나 텍스트에 고정된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드라마와 현실사이에서 수용자의 역동적 반응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대에 대한 드라마 서사를 실제 청년은 어떻게 수용하는지, 공감에 영향을 준 개인적 경험은 무엇인지에

7) <미생>에 관해서는 드라마 속에서 젠더 질서의 모순과 균열을 발견해낸 연구(정영희·장은미, 2015), 콘텐츠 재매개화 연구(김미라, 2015; 김은영, 2017), 언어와 이미지의 구조와 작동원리 연구(양승국, 2016), 신화 및 의미구조 분석(나은희, 2015) 외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혼술남녀>에 관해서는 1인 가구 미디어 재현 연구(백진주, 2018) 등이, <청춘시대>에 관해서는 젠더 표현 연구(김지현, 2018)가 있다. <미생>에 관한 분석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대한 분석은 드라마 수용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실제적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지는 드라마’ 그 자체는 대중문화 소비 양식으로서 의미가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시청자의 다수가 OTT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혹은 다른 이야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문화적 형식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⁸⁾ 그 안에서, 드라마의 소재로서 혹은 드라마의 소비자로서 청년세대가 재부상 중이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청년 및 청년의 현실은 재현과 서사영역에서 뿐 아니라, 수용과 소비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2)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 연구 경향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 연구는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수용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발했다. 텍스트의 다의성(polysemy) 및 수용자의 능동성 논의와 함께 발전한 해독의 다양성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행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수용자 자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있었지만,⁹⁾ 사례 분석이 더 많다.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용자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2000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실린 질적 방법론에 의한 내국인 대상의 수용자 연구는 해독 연구, 드라마적 재현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소비(재미 및 즐거움)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¹¹⁾ 그 중 해독 연구가 가장 일반적이다(김명혜, 2006; 김선남·원용진·정현욱, 2005; 김정선, 2012; 박진규, 2007; 박찬주, 2016; 양정혜, 2002; 이오현, 2002a, 2002b, 외 다수). 특히 여성의 해독 양상이 강조되는데,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 자체가 여성적 장르이고 여성이 주시청자라는 인식도 있지만, 여성 수용자가 드라마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자의 능

8) 텔레비전 드라마 편수만 고려하면, 2001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월평균 4.66편(총 433편)의 드라마가 개시되었지만, 200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월평균 7.86편이 개시되었다(정영희, 2020).

9) 임종수(2010)는 미디어 수용자 자체에 대해 논하면서 미디어 수용자의 정체성, 수용자에 대한 담론들을 고찰하였다. 김수정(2010)은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능동성의 의미에 천착하였다.

10) 국내 드라마에 대한 수용자 분석은 내국인과 외국인(유학생 포함)연구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 연구는 주로 한류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11) 나미수(2005)는 국내 질적 수용자 연구의 흐름을 크게 텍스트 해독 연구, 미디어 소비에 관한 연구, 하위문화 연구로 구분한 바 있다.

동성, 자율성 및 저항성의 과도한 부각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양정혜, 2002; 이오현, 2002a).

해독의 다양성을 주장한 연구는 크게, 수용자의 해석적 위치에 따른 해독의 차이 연구(김명혜, 2006; 박찬주, 2016)와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차이에 따른 해독의 차이 연구(김선남·원용진·정현욱, 2005; 김정선, 2012; 박진규, 2007)로 구분될 수 있다. 김명혜(2006)는 20~30대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해석적 위치¹²⁾에 따른 드라마 해독 양상을 살펴보고 수용자의 일상적 경험과 문화적 실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박찬주(2016)는 <미생>(2014, tvN)의 청년 수용자들이 각자의 해석적 위치에 따라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해독하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텍스트 해독에서 해석적 위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해석공동체에 내에서도 개별 수용자마다 해당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담론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그 상이한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다(주창윤, 1998)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선남·원용진·정현욱(2005), 김정선(2012), 박진규(2007)는 성, 연령, 혹은 사회적 계급 같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해독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드라마적 재현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로는, 새터민 여성들이 남한 드라마의 젠더 문제를 어떻게 해독하고 이를 통해 어떤 젠더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임영호·강주현·이동희, 2012),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해 조선족 수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한희정·신정아, 2019), 드라마에 사용된 특정 지역 사투리가 해당지역 출신 청년의 감정, 인식,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홍경수, 2019)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재현과 직접 관련된 해당 집단의 수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재현물이 다시 수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의 순환과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드라마적 재현의 문제점도 포착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는 지배이념의 전과도구로 간주되어온 대중 문화에 대한 재평가의 일환이기도 하다(박명진, 1991). 또한 드라마의 실질적 소구점을 밝혀내는 의미도 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드라마를 통한 경험 사이의 일치성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김선남·원용진·정현욱, 2005).¹³⁾ 시청 즐거움에

12) 해석적 위치란 “수용자가 텍스트를 경험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담론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지만 공유된 경험을 갖는 해독의 집단”(주창윤, 1998, 164쪽)을 말하며,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ies)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3) 시청 즐거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는 모듈스키(Modleski, 1982)와 앵(Ang, 1985/2018)을 참고할 수 있다.

대한 연구라고 분명하게 밝힌 박명진(1992), 정영희(2007), 홍지아(2010)의 연구 이외에도 즐거움에 대한 연구는 많다. 텍스트 소비 과정에서의 리얼리즘적 요소와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s)를 분석한 것도 있지만, 다수는 저항적 해독과 일탈적 해독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수용자 연구 중에서 박찬주(2016)의 분석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드라마 <미생>은 청년의 비정규직 노동현실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한계와 그 안에서 살아내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는데 더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취업난, 계급 격차 등의 문제가 일부 세대 갈등으로 치환된 현실 상황에서, 기성세대-청년 세대 간의 관계와 청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태원 클라쓰>가 현실 청년의 경제적 소외, 상처, 주눅감과 분노를 잘 담아낸 텍스트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기성세대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이 이야기 서사의 축을 이루는 <이태원 클라쓰>를 실제의 청년들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문제

연구 대상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쓰>¹⁴⁾이다. 이는 동명의 웹툰을 각색한 드라마이며, '이태원'이라는 실존 공간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성장과 창업 과정을 소재로 다룬 일종의 청춘 드라마이다. 첫 회 시청률 4.98%로 시작하여 10회까지 지속적으로 시청률을 갱신했고, 마지막 회에서 최고 시청률 16.55%로 종영하였다.¹⁵⁾¹⁶⁾ 화제성 면에서도 2월 3주차부터 3월 3주차까지 드라마부문에서 연속 5회 화제성 순위 1위였다(굿데이터코퍼레이션, 2020). 작품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¹⁷⁾ 드라마 텍스트 자체뿐 아니라 OST도 인기가 많았다.¹⁸⁾ 홈페이지의 드라마 소개에서는 '불협화음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똘치른 청년들의 "힙"한 반란'이 시작되었으며, '각자의 가치관

14) JTBC의 금토 드라마로서, 2020년 1월 31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16부작으로 방영되었다.

15) 닐슨 코리아 유료 플랫폼 가구 시청률이며, 위 시청률은 전국 기준이다.

16) 당시 기준으로 역대 비지상과 드라마 부문 시청률 7위(종편 3위)였다.

17) '2020 백상예술대상'의 TV드라마 영역에서 총 7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며, 1개 부문(여자 신인 연기상)에서 수상하였다. 제15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18)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시작', '그때 그 아인', '돌덩이가 일간 1.2.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2020년 3월 24일 기준).

으로 자유를 쫓는 그들의 창업신화를 다룬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에 따르면,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과 청년의 성장이 주요 서사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의 인기 이유로는 배우들의 열연, 검증된 웹툰 기반 스토리, OST의 뒷받침 등 많은 부분이 언급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흥행의 큰 축을 담당한 시청 층이 2030세대였다는 점이다. <이태원 클라쓰>는 바로 그 세대의 성장에 주목했다. 주요 인물이 고등학교 중퇴 전과자, 대학진학 포기자 소시오패스, 조폭 출신 전과자, 트랜스젠더, 혼외자, 혼혈인 등 극단적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들은 중심에서 비켜난 소수자라는 점에서 오늘날 청년의 현실적 위치와 유사하다. 드라마는 청년 주인공의 신념이 관철되고 사회 소수자가 성공한다는 점에서는 판타지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현실에서 성공한 기성세대를 상대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어내는 주변부 출신 젊은이들의 영웅담에 청년세대가 감정적으로 동조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야기 무대인 '이태원'은 청년의 활기를 상징하는 실제적 장소이고 '포차'는 그들이 타인과 관계 맺는 구체적 장소이기 때문에 실재감을 만든다. 또한 웹툰 원작자가 드라마 대본을 쓴 만큼 내용 면에서 두 텍스트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작의 청년 감성이 비교적 잘 재현되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20대는 <이태원 클라쓰>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공감과 재미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그 배경이 되는 개인적 경험은 무엇이었는지를 수용자의 감상문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0대 청년세대의 <이태원 클라쓰> 수용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대 청년들은 드라마의 어떤 지점에 공감과 재미를 느꼈으며, 공감의 배경이 되는 개인적 경험들은 무엇이었나?', '만약 공감하지 못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나?'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20대가 공유하는 감정과 정서적 현재를 포착하고, 한국의 청년이 자기 자신과 사회를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드라마 소구 요소와 몰입 지점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드라마 소재로 혹은 드라마 수용자로 부상 중인 청년세대의 다면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웹툰의 드라마화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향후에도 지속될 재매개 텍스트의 생산과정에 함의하는 바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과정

수용자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심층 인터뷰(Depth Interview)가 선호된다. 그 이유는 텍스트에 대한 면접자들의 해독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을 수 있고(김명혜, 2006), 질문의 방

향과 깊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면접자가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게시판 분석이 자주 사용된다. 이 방법은 개별 수용자의 동의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며, 대규모의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드라마 수용자 연구에서 이언 앵(Ang, 1985/2018)이 사용했던 감상문 분석방법이 사용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박명진(1992)은 이언 앵과 유사하게 여성 월간지와 주간지의 광고를 통해 시청자의 감상문을 받아서 분석했다. 정영희(2007)도 드라마 '회별 시청 후 감상문 제출'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수용자와의 대면 접촉과 시간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언 앵의 감상문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언 앵은 시청 감상문을 분석하여,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어떤 속성 때문에 <델러스>를 좋아하는지, 드라마의 오락적 가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즉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재현방식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¹⁹⁾ 감상문 분석은 응답 시간을 수용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수용자들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면 접촉이나 시간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강의는 물론 각종 회의와 세미나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는 이른 바 '비대면 시대'에 방송학 연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연구의 고전적 방법론을 새롭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20대 대학생들에게 <이태원 클라쓰>에 대한 시청 소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미디어와 콘텐츠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다.²⁰⁾ 감상문은 총 2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1단계에서는 <이태원 클라쓰>에 대한 전체적 감상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총 72명의 학생에게 드라마에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이들은 18개의 팀으로 나뉘어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18개 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드라마 주제, 캐릭터·연기자, OST, 이야기 무대, 에피소드(호/불호)였고, 그 각각에 대해 깊이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해 이를 2단계 분석의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2단계는 1단계 참여자 중에서 2단계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

19) 이언 앵(Ang, 1985/2018)은 드라마 델러스를 본 시청자의 시청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잡지에 광고를 내서 42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들이 수용자들의 시청경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델러스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가 되었다.

20)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응답 사례를 지급하였다.

었다. 이들은 1단계 기술에서 드라마 에피소드를 개인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기술한 학생들이다. 남학생의 참여율이 낮아서, 성비 보완을 위해 남학생 6명에게 추가로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1명(남 8명, 여 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이 드라마에서 느끼는 경험적·정서적 현실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문하였다. 팀으로 구성되었던 1단계 응답자에게는 '1차', 2단계 응답자에게는 A부터 U까지 응답자 기호를 부여하였다. 응답자들이 대학생에 한정된 면이 있지만, 이들은 웹툰과 웹툰 기반 드라마의 핵심 소비자이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기에 20대가 경험하는 보편적 고민을 공유한다고 보았고,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Sampling Method and Period of Research

period of research	primary (April 2020)	secondary (July & November 2020)
sampling method	every students of class	students of class who described personal experience in depth, and partly others
sample size	72 persons (18teams)	21 persons (8male, 13female)

4. 텔레비전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수용자 분석 결과

분석결과, <이태원 클라쓰>에 대해 20대가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한 지점은 크게 ①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②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③ 실제 경험과 관련된 감정의 내면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20대가 공유하는 올버름에 대한 갈망과 신념에 대한 판타지를 포착할 수 있었으며,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에서는 시/청각적 실재감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화된 연출에 대한 찬사가 나타났다. 또한 실제 경험과 관련하여 감정 이입된 부분에 대한 응답을 통해 20대의 고민과 삶의 내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1)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응답자 대부분은 <이태원 클라쓰>가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의 성장 이야기로서, 부조리한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청년을 응원하며,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담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평가했다. 드라마 서사에 몰입한 수용자가 있는가 하면, 이상화된 인물과 에피소드에 이의를 제기하

며 지극히 현실적으로 평가한 수용자도 있었다. 후자는 드라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20대 내에서 드라마에 대한 기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부조리한 세대 고발과 응징으로서의 성장 서사

〈이태원 클라쓰〉는 ‘박새로이 아버지의 죽음 - 장가에 대한 복수 결심 - 단밤포차 설립 - 단밤포차 영업정지 - 단밤포차 재정비 - 단밤포차 주식 철회 - 최강포차 방송 최종 우승 - 장가의 몰락 - 박새로이의 장가 인수합병으로 연결되는 청년의 성장 드라마이다.’(1차). 그러한 청년의 성장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에서 출발하였다. 드라마 주제가 ‘청춘 그리고 복수, 권선징악’(A, 여)이라는 응답을 살펴본 결과, 복수 대상인 장대회는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대표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기성세대=악, 젊은 세대=선’의 구도로 수용된 것이다. 특히 전학 첫날, 장가포차 회장 아들을 때려 퇴학 위기에 놓인 박새로이를 보면서 ‘권력에 무능력한 부패한 어른들의 세계’(1차)를 보았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 청년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스토리는 청년들에게 ‘정의는 승리한다’(G, 여)는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박새로이의 삶을 통해 인간관계, 성공, 행복, 사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그가 하는 행동과 말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그의 성장과정들을 잘 보여준 것 같다.”(J, 여)

“확장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왕따가 성공하여 앞에 서있게 되는 모습, 장대회의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중략)..... 복수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끝난 모습을 보며 만족하였다.”(1차)

〈이태원 클라쓰〉는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참여적이고 교육적인 드라마로 인식되기도 했다.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에 대한 사회비판, 혹은 권력을 지닌 자의 횡포에 대한 사회비판’(1차)으로 이해된 것이다. 또한 ‘대기업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도덕적 윤리의식이 부족한 인물을 비판하면서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전달’(1차)하며, ‘권력주의에 대한 비판 혹은 풍자와 사회비판 요소가 많아서 흥미로운 드라마’(1차)였다고 평가되었다.

“남을 차별하고 짓밟고 위에 올라서는 것이 당연해진 현재 사회에 대해서 박새로이를 통해 비판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한번씩은 이런 주제의 드라마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B, 남)

〈이태원 클라쓰〉의 주제를 청년의 성장과 복수로 이해하고, 사회비판적인 드라마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드라마 후반부에 부각된 남녀 주인공의 연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²¹⁾ 이러한 평가는 '3포 세대', 'N포 세대', '흙수저' 등 생존 이외의 것에는 여유가 없는 청년에 대한 담론이 부분적으로는 청년세대 안으로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2) 청년세대를 향한 응원

수용자들은 <이태원 클라쓰>를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신념을 가지고 도전할 것을 격려하는 드라마로 받아들였다. '박새로이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각박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위로를 주는 것'(G, 여)으로 느낀 것이다. 그러한 위로가 청년세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전달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이태원 클라쓰>가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대사에서 위로를 느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전과자 출신인 최승권에게 건넨 '자기 값어치를 헐값에 매기지 말라'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다. 실수가 있었어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는 이 내용에서 수용자들은 크게 위로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상이 ‘높은 대학 아니면 성공 못한다.’라는 말을 자꾸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나만 하더라도 세상의 말들,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의미를 낮추고 또 낮추고 있었는데, <이태원 클라쓰>를 접하면서 아무리 드라마일지라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I, 여)

<이태원 클라쓰>는 청년을 위로한 동시에 '자수성가는 가능하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다.'(1차). 또한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심한 오늘날 박새로이가 창업을 시작해 노력하며 점점 성공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을 응원했다.'(1차). <이태원 클라쓰>는 '현시대의 청춘의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용기 있게, 자신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1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박새로이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다.....(중

21) 주인공들의 연애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리브 라인'의 전개 방식이나 '10살 차이나는' 관계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다(A, 여/ H, 여).

략).....이 드라마는 나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열심히 살자라는 자극을 주기도 한다.’(1차)

〈이태원 클라쓰〉는 청년에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념을 지키고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새로이를 통해 청년에게 ‘정말 나만의 의지를 다잡는 것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I, 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편견을 깨고 도전하는 청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편견을 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새로이의 모습을 통해 20-30대들에게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중략)..... 로맨스로 드라마 전회차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이고,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다.”(E, 여)

통합적으로, 수용자들은 〈이태원 클라쓰〉가 청년들에게 본인의 가치를 타인이 정하게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고 살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학생으로서, 사회진출 준비생으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 중인 20대를 위로하고 격려한 응원의 목소리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소수자 감성 및 다양성 옹호

수용자들이 〈이태원 클라쓰〉에 공감하며 재미있게 본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출신의 소수자가 중심인물인 점을 언급하였다. 중졸 전과자, 대학진학을 포기한 사이코패스, 조폭 출신 전과자, 트랜스젠더, 혼혈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해지는 과정을 표현’(1차)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강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응원’(1차)한 것이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선함의 영역에 서 있는 단밤 포차 구성원들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에서 꺼리거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D, 여)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소수자’로 칭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재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D, 여)

캐릭터의 소수자적 특성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인식된 것은 트랜스젠더 ‘마현이’였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동성애나 동성애 코드가 소재로 활용된 적이 있지만, 트랜스젠더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 경우는 없었다. <이태원 클라쓰>에서 마현이는 요리 경연대회인 ‘최강 포차’ 결승전을 앞두고 정체성이 밝혀지고 곤란해지면서 에피소드의 중심인물이 되었다.²²⁾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는 ‘마현이’입니다.....(중략)..... 드라마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꽤 큰 이슈이고, 시청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중략)..... ‘마현이’라는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준 것.....”(L, 여)

응답자들이 <이태원 클라쓰>의 소수자성으로 언급한 내용에는 ‘여성’도 포함되었다. 몇 명의 응답자는 기존 드라마와 달리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 편견을 깨는 적극적인 여주인공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여성 등장인물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남성 중심 복수 서사에서 대부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던 여성 캐릭터.....(중략).....5회에서 “잘 생각해요. 전 제갈공명이예요. 멀린이고, 레일리예요. 사장님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 저 삼고초려 없이, 스스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점이 좋았다.”(M, 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대는 스스로를 기성 질서 속의 소수자로 위치시키며, <이태원 클라쓰>의 소수자에 감정이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특히 ‘마현이’의 소수자성을 가장 강렬하게 인식한 것은, 아마도, 성적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배제가 가장 큰 영역이고, 여기에 청년세대의 고립감을 대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환상적 수용과 현실적 수용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 및 에피소드의 현실성과 개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판한 수용자도 있었

22) 2020년 1월, 국방부가 복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을 희망한 육군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상황도 성적정체성과 성적 다양성이 존중된 <이태원 클라쓰>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들은 주인공 남녀보다는 부수적 인물인 오수이에 공감했으며, 장대희의 기업인으로서의 업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몇 개의 에피소드에서 박새로이의 행동을 올바른 것, 선으로 간주하는 서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와 신념에 관한 이상화된 드라마의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드라마의 지배적 메시지를 현실과의 관계에서 교섭적으로 해석하였다. 캐릭터 측면에서, 이들은 박새로이를 융통성이 부족하고 무모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물로 평가했다. 또한 ‘현실에서 그런 고집을 피우거나 신념을 지닌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선망하는 인간상’(D, 여)이라고 평가하며, 캐릭터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캐릭터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수용자는 사실상 드라마 몰입은 어려웠고, 실제로 드라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릎 꿇지 않고, 소신 있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중략).....사과를 해야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중략).....박새로이가 현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줄 알았으면 좀 더 긴장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1차)

“장근수가 본인이 장가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단발을 유지시키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선택하자 이서는 매정하게 근수를 자르려고 하는데, 박새로이가 ‘장사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보입니다(8회). 이는 장사를 하는 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주인공 박새로이에게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C, 여)

또한 조이서는 ‘인플루언서인 만큼 자신의 가게를 어필하는 방법을 잘 표현하기도 하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I, 여)이지만, 소시오패스적 성격은 폭력적이며, 다방면에서 뛰어나지만 이기적인 캐릭터라고 평가하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이서의 캐릭터가 너무 비호감이라 드라마 보기 불편했습니다.....(중략).....타인에 대한 역지사지가 부족하여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D, 여)

반면, 오수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없었다. 오수이는 <이태원 클라쓰>의 인물 중 ‘현실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B, 남)하는 인물로서, 실제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평가되었다. 그래서 오수이에 공감하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시청자들은 주인공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데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부수적 인물에 동의하고 현실

감을 느꼈다. 여주인공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수아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중략).....저는 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된 수아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 여)

악역 장대희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있었다. 수용자들은 캐릭터의 충돌을 기성-청년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로 이해하면서도 중재적 위치에서 장대희의 업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박새로이의 태도를 일부분 비판하였다. 캐릭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선-악의 대결을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인물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텍스트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²³⁾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장대희’가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그가 ‘장가’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들 모두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중략).....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새로이’는 더욱 정의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 초반에 보이는 답답하고, 안하무인 같은 태도들 모두를 정의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L, 여)

에피소드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선-악 구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박새로이 관련 에피소드는 모두 선, 장대희 관련 에피소드는 악으로 표현한 방식에 반대하였다. 또한 드라마 자체가 선-악 구도를 부각하여 정의와 불의의 대립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선과 정의의 인물로 묘사된 박새로이의 행동은 폭력적이고²⁴⁾ 살인을 시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3)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얀 거탑>(2007, MBC), <베토벤 바이러스>(2008, MBC)의 주인공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착하지 않은’ 인물이 주목받았는데, <왔다! 장보리>(2014, MBC)에서 악당인 연민정이 시청자를 매료시켰고, <사이코지만 괜찮아>(2020, tvN)의 여주인공이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마냥 ‘착하지 않은 주인공’의 등장은 대중의 요구이기도 한 것으로, 그저 착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쟁취하는 것이 더 이상은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류수연, 2020. 8. 31).

24) 1회 후반~2회 초반 장근원과 의 싸움 장면, 3회에서 단밤 포차에 찾아온 진상 손님을 위협적인 태도로 대하는 등을 지적하였다.

“정질이 급하고 난폭한 면이 있습니다.....(중략).....소신 있는 캐릭터로 합리화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전체적으로는 권선징악과 선악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박새로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C, 여)

캐릭터와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드라마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현재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존하는 배경(이태원, 홍대 등)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위기를 보여주었지만, 비현실적인 복수가 전개되는 역설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차).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인물.....(중략).....수많은 고난 속에서 달콤한 유혹을 견뎌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로 이기적이고 간사해진 현실의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H, 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년들은 일종의 판타지일 수 있는 드라마의 서사를 단지 판타지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해석하면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드라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줄다리를 하고 있었다. ‘오수아’ 캐릭터를 쿨하게 인정하며 그의 행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에 이른바 ‘홍수지’라 할 수 있는 주인공 ‘박새로이’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타협하지 않은 채로 사업적 성공을 거둔다는 환상적인 이야기에도 충분히 감정이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드라마에서 악역이라 할 수 있는 장대희가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대형 식품회사를 창립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즉 청년들은 드라마의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를 모두 제각각으로 분화하여 수용하는 방식을 보임으로써 설령 드라마의 텍스트가 선악 구도를 보일 지라도 이를 단순한 선-악 구도의 서사로 수용하기보다는 더 정치하고 세밀하게 주인공들의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며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응답자들은 연출 면에서는 웹툰의 성공적인 실사화, 실존하는 이야기 무대, 적절하게 감각적으로 활용된 OST, 청년들의 소통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재미 및 공감 요소로 손꼽았다.

등장인물의 외양이 웹툰과 유사하고 출연자들은 원작의 ‘오늘거리는 대사’를 잘 표현하였으며, 드라마의 무대가 홍대·이태원·남산타워 등 실존하는 공간이어서 현실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OST·BGM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잘 어우러지며, 청각 매체로서 감각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들은 청년세대에게 익숙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동영상 콘텐츠 등이 활용된 점도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게 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웹툰의 실사화 자체를 반대한 응답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웹툰을 ‘원본’으로 간주했고, 드라마를 ‘재창작된’ 텍스트가 아니라 웹툰의 ‘카피본’으로 인식하며 웹툰을 경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1) 웹툰 실사화에 대한 호응 vs. 웹툰의 경전화

2차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부분 원작과의 비교에서 발생한다. 웹툰이 실사화된 경우는 평가의 대부분이 캐릭터의 유사성에 집중되고, 더불어 원작의 에피소드가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응답자들은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헤어스타일, 표정과 제스처, 대사의 표현 등을 원작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원작 느낌이 잘 전달되었다고 응답한 수용자들은 드라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웹툰은 2차원의 그래픽과 간결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는 이미지와 문자, 즉 시각 단일 감각에 의해 전달된다. 평면화된 그림체의 고유한 질감도 캐릭터 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웹툰과 표현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게 캐릭터를 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웹툰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잘 전환시켰고, 이 점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게 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또한 캐릭터의 특성을 잘 살린 연기자들의 표정과 몸짓도 수용자의 몰입을 높인 요소로 평가되었다.

“오늘거리는 대사들이었음에도 진지하게 잘 표현해낸 것이 정말 대단하다. 드라마 배우 분들의 연기는 뛰어났던 것 같다.”(G, 여)

캐릭터 구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지만, 에피소드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후반부의 전개 속도, 주인공의 러브라인, 폭력적 장면이 집중되었으며, 원작에 없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개연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필요 이상의 폭력적인 장면, 장근원의 학교폭력 장면, 박새로이가 장근원을 폭행하는 장면, 최승권이 진상 손님에게 뜨거운 국을 붓는 장면 등에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준다고 느껴서 보기 불편했다.”(1차)

“16부작을 맞추기 위해서였는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추가되고 전개가 느려지면서 전체적으로 늘어진다느 느낌을 받았다.”(N, 여)

웹툰의 드라마화를 인정하며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있었지만 일부 수용자는 웹툰의 드라마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웹툰 자체를 경전화하며 모든 2차 텍스트의 생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웹툰의 텍스트적 질감을 선호하는 수용자의 기호 차이라기보다는 원본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해온 수용자의 관행적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작을 먼저 본 학생들은 캐릭터, 에피소드 전개 등에서 드라마와 원작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드라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드라마를 보고 원작을 본 학생들은 드라마도 재미있었지만, 원작을 먼저 본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웹툰의 드라마화를 ‘새로운 창작’ 보다는 ‘원본의 카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웹툰에 청년세대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의 권위가 부여되었고, 텔레비전 드라마와는 다른 웹툰의 고유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웹툰의 경전화’다.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를 밝힌 아래의 응답에는 원작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드라마 극본을 원작자인 광진 작가 썼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중략)..... 원작에서 벗어나거나 내용을 해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내었다고 봅니다.”(D, 여)

(2) 체험 가능한 실제적 장소의 활용

20대가 <이태원 클라쓰>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즐겁게 시청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하는 장소가 이야기 무대로 설정되어 접촉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본 장소나 실제로 방문 가능한 이야기 무대는 현실감과 사실감을 높여 시청자들에게 실제적 경험을 전달한다. 드라마 서사 자체의 비현실성이 종종 사실적 연출에 의해 상쇄되기도 한다. <이태원 클라쓰>가 실현 가능성이 적은 소수자의 성공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20대가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대에게 익숙한 장소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용자의 몰입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가볼 수 있는 이태원과 홍대를 배경으로 촬영을 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배경 덕분에 현실감을 느끼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이는 장소나 거리가 나오면 반가워서 더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E, 여)

이태원은 실제로 청년세대의 음식 문화를 주도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그 곳에서의 창업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창업을 준비하는 20대에게 실제감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에서 보이는 남산타워 장면을 담으면서 이태원에서 단밤으로 꼭 성공하려는 청년의 꿈에 대한 열정, 패기 등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태원이란 장소의 상징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1차)

(3) 청각적인 상호작용 효과

〈이태원 클라쓰〉가 종영될 즈음,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이 드라마의 주요 OST인 ‘시작’, ‘그때 그 아인’, ‘돌덩이’가 일간 1,2,4위를 기록하며 드라마의 인기를 증명했다.²⁵⁾ OST가 좋았다는 응답자들은 ‘시작’은 박새로이의 에피소드에서, ‘돌덩이’는 박새로이와 마현이 에피소드에서 캐릭터를 잘 설명하고, 등장인물의 각오를 보여주면서 감정이입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대사를 보완한 청각적인 감정적 메시지가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공감을 끌어낸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웹툰과 드라마보다 OST를 먼저 접했다는 응답자는 OST만 들어도 드라마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시작’과 ‘돌덩이’의 ‘당찬 멜로디와 가사’가 드라마에 몰입하게 했으며, 그 안에 박새로이의 가치관이 잘 표현되었다고 응답했다(E, 여).

“OST를 들으면 박새로이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박새로이와 조이서의 모습이 그려졌다. 드라마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OST를 들으면서 캐릭터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I, 여)

(4) 청년세대의 소통 미디어 활용

〈이태원 클라쓰〉에서 여주인공 조이서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박새로이의 전단지 홍보

25) 2020년 3월 24일 기준이다.

를 SNS 홍보로 대체하여 ‘단밤’을 일으켰다. 조이서가 사용한 인스타그램, 블로그, 라이브 방송, 동영상 콘텐츠는 청년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통 미디어이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미디어 사용과 CG 활용이 SNS에 능숙한 청년세대의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인물 간의 소통, 사회적 소통의 도구는 당대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전 상태를 반영한다.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동시대 20대의 주요 소통 도구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며 20대의 몰입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단밤포차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조이서의 주도로 인스타그램 홍보, 라이브 방송,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게 영업에 있어서도 SNS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C의 주변인)

종합적으로, <이태원 클라쓰>는 연출 면에서 웹툰 원작이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로 판단되었다. 그러한 성공에는 웹툰의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충실하게 재현하여 소위 ‘싱크로율’을 높인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세대의 기호와 생활양식을 잘 활용하여 드라마 곳곳에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 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재미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경험과 연결된 감정의 내면화

수용자들은 학교폭력, ‘알바’와 구직활동, 20대만의 추억 등에서의 실제 경험이 드라마에 감정이입하게 하였다고 평가했다. 정서적 경험에서는 20대의 상처, 무력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각오 등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캐릭터와 에피소드에 몰입할 수 없었던 수용자들은 비현실적인 드라마여서 공감할 수도, 감정이입이 되지도 않았다고 응답하여, 20대 내부에서 수용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이태원 클라쓰>가 20대 내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20대 세대 내에서 발생한 웹툰 원작과 드라마에 대한 공명적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 실제 경험과 정서적 차원의 감정이입

학교폭력, 알바와 구직활동, 20대만의 추억 등 수용자의 실제 경험 중에서 ‘학폭’이 중요하게 응답될 것은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다. <이태원 클라쓰>에서 학교폭력은 악역의 캐릭터를 완성하고 주인공의 복수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설정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해 침묵한 기성세대의

공모적 악행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러한 학교폭력 에피소드에 강하게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인공과 주변인(이호진)의 복수 행위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학교폭력은 20대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물리적·정서적 위협이다. 2019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1.6%로 2018년 1차 조사에 비해 0.3%p 증가했다(교육부, 2019. 8. 26).²⁶⁾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드라마 속 '학폭'은 단순히 악행을 부각시키는 에피소드를 넘어서 강한 현실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호자인 기성세대가 알지 못했거나 중재하지 못한 그들만의 경험에서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들은 이 경험과 관련하여 보호받지 못한 학창 시절의 상실감과 도움 받을 곳 없는 20대 우울감을 표현하였다.

“출소한 장근원을 만났으며 이호진이 새로이에게 말하는 장면.....(중략).....한 대사가 기억에 남았다. 그는 “장근원 만났어. 기억조차 못하더라, 나를. 나는 하루도 잊은 적 없는데. 웃긴 게 뭐지 알아? 나는 그때랑 다르고 장근원은 모든 걸 잃었어! 근데, 순간 무섭더라.”라고 말하는 부분.....(중략).....아직도 그때 생각이 저 말이 너무 공감되면서도 속이 쓰렸습니다.”(D, 여)

“조이서가 국회의원의 딸이 가해자로 나온 학교폭력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에피소드가 있다.....(중략).....나 또한, 비슷한 사례를 본 경험이 있는데.....(중략).....SNS의 파장력을 느꼈고 약간의 SNS에 대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G, 여)

또한 아르바이트와 구직 활동 중의 경험, 그 과정에서의 '갑질'이 떠올라서 공감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리디는 이유로,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취객이 많이 다니는 저녁시간에 이런 경험이 있기에 최승권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다.'(B, 남)는 것이다. 특히 취업·창업과 관련된 감정이입은 고학년 남학생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주인공이 부럽다', '오수아가 부럽다'는 응답에서 20대의 녹록치 않은 경제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26) 이 통계는 초4~고3 재학생 약 410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은 언어폭력(8.1건), 집단 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찰은 <이태원 클래스>에서 다루진 않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부분들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는 부분에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P, 남)

“‘오수아’가 장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중략).....현실적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수아가 부럽다고 생각도 했습니다.”(T, 남)

그 외에는 20대의 평범한 일상, 유쾌한 경험이 생각나서 공감하고 에피소드에 감정이입하였다고 밝혔다.

“조이서가.....(중략).....자정이 지나 갓 스무 살이 되어 주점에 들어가며 당당하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공감되었습니다. 실제로 19살에서 20살이 될 때 많은 친구들이 했던 경험이라서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C, 여)

수용자의 실제 경험과 연결된 이러한 에피소드는 실존하는 장소 및 익숙한 OST와 함께 수용자들에게 경험적 리얼리즘을 전달함으로써 비현실적 캐릭터와 복수의 서사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실 경험과의 거리감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캐릭터와 스토리가 비현실적일지라도 주인공의 환경과 심리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면서 정서적인 현실감을 만들어낸다. 이는 이언 앵이 말하는 드라마 시청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캐릭터의 비현실성, 등장인물들과 다른 응답자의 환경, 에피소드의 비개연성을 이유로 경험적, 정서적 현실감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은 드라마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실 너무 없었다. 모든 캐릭터가 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너무 다르고 주위 사람들도 이 캐릭터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N, 여)

일부 수용자들이 오히려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리적으로 선택한 오수아에게 감정이 입한 것도 그러한 현실경험과 감정이 내면화되어있는 청년 수용자의 실제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들은 오수아에게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몇몇 캐릭터들은 저와 유사하거나 제가 닮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 공감한 적이 많은데 <이태원 클라쓰>의 경우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중략).....단지 현실적인 인물인 오수아에게 동질감이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H, 여)

감정이입할 수 없었다는 평가는 드라마가 제시하는 설정 및 세계관을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에서 비롯되었다. 드라마가 멋진 판타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텔레비전을 끄면 곧바로 ‘장가’와 같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토익과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세대의 엄혹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태원 클라쓰>는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서사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드라마 서사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도 읽힐 수 있었다.

“박새로이가.....(중략).....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그게 열정일까? 장가에 입사하려 토익을 코피날 때까지 공부하는 젊은이는 덜 멋있고, 오수아에게 대뜸 사과를 요구하는 박새로이는 멋있는가?” (F, 여)

수용자 분석을 통해서, 특정 드라마에 청년들이 호응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며, 서사의 수용과정이 다양하여 해석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드라마 텍스트 수용의 다양성 연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3) 세대 안의 공명반응

드라마 방영 후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이 더 크게 화제가 되어 조회 수가 급증하였다.²⁷⁾ 응답자 중에는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찾아서’ 본 경우나 친구의 권유로 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웹툰에 진품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드라마의 웹툰 유사성 정도를 드라마 평가

27) 원작 웹툰은 2020년 3월에 누적 조회 수 1300만 회를 넘겼다(고경석, 2020. 3. 13). 이미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였고 ‘인생 웹툰’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경덕현, 2020. 11. 14).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한 특징은 응답자뿐만 아니라 응답자 주변인의 평가에서도 나타나, 2차 생산물과 원작은 그 자체로 상호 텍스트적일 뿐 아니라, 각 텍스트에 대한 평가도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한 청년 집단 내에서 공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응답자의 주변인들은 드라마와 웹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하여, 〈이태원 클라쓰〉에 대한 또래 집단의 평가와 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²⁸⁾ 분석결과 드라마 시청률과 화제성 지수는 높았었지만 20대 내에서 긍·부정적 반응이 혼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I'의 주변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웹툰 원작 드라마 중 등장인물의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이며, 그래서 더 집중했고 웹툰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에 좋았다'(주변인 1)고 평가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난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주변인 2)했으며, '스토리도 흥행한 웹툰이라 탄탄해서 보는 동안 재미있게 믿고 봤'(주변인 4)으나, '불필요할 정도로 폭력적인 장면이 매우 많아 챙겨보지 않았다.'(주변인 3)고 평가하였다. 긍정적 평가는 주제·메시지·인물 다양성, 연기·캐릭터의 웹툰 유사성, 장소·OST, 원작과의 에피소드 유사성, 현실적 배경 혹은 창업의 현실성에 집중되었다.

부정적 평가는 후반부의 느린 전개와 에피소드 개연성 부족, 원작과의 차이, 폭력적 장면, 미성년자 러브라인에 집중되었다. 웹툰의 드라마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웹툰 원작을 먼저 본 입장에서는 ‘딱히 드라마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원작에 대한 기대가 커 실망했다.’, ‘캐스팅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D의 주변인)

청년세대 내에서 동일 텍스트에 대한 수용과 해석의 차이는 '같은 콘텐츠를 보고도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같된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1차)는 한 응답자의 감상문에서 잘 포착되었다. 이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응답자의 위치(인구학적, 해석학적)에 따라 드라마 수용행태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해독의 다양성 연구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28) 수용자들은 전화, 카톡, 인스타그램을 활용했으며 그 중 카톡 사용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5. 결론 및 함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동시대의 지배적인 사고와 감정이 녹아있는 주요 텍스트로서 사회구성원들은 특정 콘텐츠를 통해 시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하기도 한다. 원작인 웹툰 〈이태원 클라쓰〉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연재되며 4억의 누적조회 수를 기록했고,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다(정덕현, 2020, 11, 14).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었고, 연구자들은 이들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드라마를 ①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②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③ 실제 경험과 연결된 감정의 내면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이태원 클라쓰〉가 부조리한 기성세대의 인습을 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응징하는 성장 서사의 틀을 갖추에 따라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보호받지 못한 청년세대의 상실감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변하여 ‘응징’이라는 서사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에서, 청년이 기성세대의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대신에 또래의 연대를 통해 창업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지와 성원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소수자 감성과 다양성 옹호라는 특징은 청년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인 소수자로서의 감성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드라마의 서사를 단지 판타지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실제 현실과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 사이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담아내는 드라마에 공감하며, 주체적으로 드라마를 수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드라마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측면은 웹툰의 실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실사회 거부 정서, 체험 가능한 현실 장소의 활용, OST를 통한 청각적인 상호작용 효과, 청년세대의 소통 미디어 적극 활용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드라마 연출자의 치밀한 수용자 포섭 전략에 수용자들이 가까이 응답한 결과로 해석된다. 20대가 TV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상식이 된 현재, 텔레비전 드라마가 청년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SNS, 블로그, 웹툰이 연재되는 포털 등 20대가 소비하는 플랫폼을 선점하여 20대와의 접촉점을 늘이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드라마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폭넓은 그물을 가진 〈이태원 클라쓰〉는 그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며 청년세대 포섭 전략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은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실제 경험과 연결하여 감정적으로 내면화하

였다. 그 내용은 경험적·정서적 차원의 공감과 감정이입, 현실 경험과 거리감, 세대 안의 공명 반응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20대 수용자들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교폭력과 불공정한 처분, 아르바이트 구직과 노동 과정에서의 ‘갑질’이라는 실제 경험이 떠올라서 공감할 수 있었으며, 일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현실 경험과 차이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드라마와 웹툰을 접하면서 ‘우리 세대의 문화’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세대 안에서 발생한 텍스트에 대한 공명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청년들의 현실적 위치와 문화적 감수성에 기초한 그들만의 드라마 수용방식이다. 청년들은 드라마를 단지 허구의 판타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참조하는 텍스트로서 수용하고 있었다. 이른바 흡수저라 할 수 있는 청년이 사업으로 성공하여 원수를 갚는 보복 서사에 부분적으로는 감정이입 되었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주변인물인 ‘오수아’의 현실적 판단과 결정에도 공감을 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수자를 향한 응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에만 열광할 수 없는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실제 현실과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 사이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둘째, 드라마의 웹툰 원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함의이다. 드라마와 웹툰의 긴장 사이에서 웹툰의 자율성이 점점 커져가는 쪽에 수용자들이 판정승을 선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툰의 드라마화가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웹툰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구조와 캐릭터의 일치 여부이다. <이태원 클라쓰>는 웹툰 원작자가 드라마 대본을 썼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원작과의 차이가 적었고, 특히 원작의 캐릭터를 충실히 반영한 남녀 주인공의 캐스팅으로 인해 원작과 드라마의 이질감이 적었다. 원본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해온 수용자의 인식이 증가하여 ‘원작의 경진화’ 경향은 커져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드라마 제작에서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더 활발하게 영상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드라마 제작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을 염두에 둔 복합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구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은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 자체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둘러싼 내·외적인 복합적 요소들로 인해서 드라마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웹툰, OTT서비스, 음원포털사이트, SNS 후기와 이벤트, 실제 장소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더 이상은 ‘드라마적 서사’로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제작과 소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이러한 복합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내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세 번째 함의는 수용자의 이러한 수용 태도가 드라마

제작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엄밀성을 추구했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응답자가 충청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어서 전국의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이다. 또한 최근에는 고교 자퇴자, 대학진학 포기자 등 다양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대표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미디어 전공 학생들은 텍스트 수용에 있어 일반인들보다 비판적이거나 훈련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웹툰과 청년 드라마의 주요 소비자이고, 20대로서의 감성과 고민을 공유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드라마의 청년 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수용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국 드라마의 생산-텍스트-수용 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 H.C.(2020.12.30.). KakaoPage. Daum Webtoon 20 million webtoons instead of 10 million movies. *Electronic Times*. Retrieved 1/17/21 from <https://www.etnews.com/20201230000016>
- Ang, I.(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Baek, J.J.(2018). *Societal phenomenon of 'single-person household', media representations and cultural implications : a study on <Drinking Solo> with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i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Y.-H.(2007). A Study on the Audience's Realistic Sympathy and Pleasure in the Television Drama 《My Name Is Kim Sam-So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1(4), 32-57.
- Chung, Y.-H.(2020). A Study on Motherhood Fantasy in Television Dramas : Analyzing a KBS2 drama, 'When Camellia Bloom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4(4), 132-166.
- Chung, Y.-H. & Jang, E.-M.(2015). Shaky Gender, the Changing World : Focusing on Drama Misaeng. *Media, Gender & Culture*, 30(3), 153-184.
- GOODDATA Corp.(2020). Online TV Audience Ratings. Retrieved 10/16/20 from <https://m.post.naver.com/cherypk1>
- Ha, J.G.(2020. 12. 29). [Ha Jae-geun's tweezers to collect culture] Lim Young-woong and Trotman... Keywords for this year. *Digital Times*. Retrieved 1/17/21 fro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3002102269660002
- Han, H.J.,&Shin,J.A.(2019). Representations of Chosun-jok in Korean TV Dramas and Chosun-jok's Reception of the Representations.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18(1), 227-262.
- Hong, J.(2010). The Pleasure of Watching TV Drama <You're Minam> in the Perspective of Romance Comic Sensibilit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1), 255-296.
- Hong, K.S.(2019). Study on the influence of watching dialectic dominant television drama to the emotion, recognition & action of regional youth : in-depth interview with the viewer of tvN drama <Top Star Yubegi>.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9), 366-375.
- Hwang, S.Y.(2020. 3. 12). At the center of the popularity of <Itaewon Class> is "4050 Men." *The Daily Sports*. Retrieved 10/16/20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728188

- Im, J.(2010). The Births and Experiences of Audiences : Reader, Listener, Viewer.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7(1), 77-120.
- Im, Y.-H., Kang, J.-H. & Lee D.-H. (2012). North-Korean Immigrant Women's Reception of Gender Issues in Korean Television Drama. *Media, Gender & Culture*, 23, 143-176.
- Jeon, S.H.(2020. 3, 12). Why is 2030 fanatical about 'Itaewon Class'. *The PR*. Retrieved 10/16/20 from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63>
- Joo, C.Y.(1998). The Interpretative Positions of the Television Drama Audie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2(4), 163-199.
- Jung, D.H.(2020. 11. 14). Synergy of 'Drama x Webtoon' as 《Itaewon Class》. *Sisajournal*, No. 1622. Retrieved 11/17/20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42>
- Jung, S.W.(2020. 10. 28). The face of youth depicted by <Itaewon Class> and Record Of Youth. *GQ*. Retrieved 1/17/21 from http://www.gqkorea.co.kr/2020/10/28/%ec%99%80-%ec%9d%b4-%ea%b7%b8%eb%a0%a4%eb%82%b8-%ec%b2%ad%ec%b6%98%ec%9d%98-%ec%96%bc%ea%b5%b4/?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 Kim, E.-Y.(2017). The Contents' Remediation, Traversing Reality and Fantasy – A Study Case on <Misae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1(1), 147-174.
- Kim, J.(2012). A Study on Audience's Interpretation of Drama <Life is Beautiful>.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0(1), 86-123.
- Kim, J.-H.(2018). *A study on gender expression aspect shown in TV drama <Age of Youth> seri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2015). A Case Study of Cross-Media Storytelling : Remediation of Webtoon <Misaeng> to Drama Series <Misaeng>. *Journal of Korea Content Association*, 15(8), 130-140.
- Kim, M.H.(2006). Female Audiences' Reading of the Drama 《My Lovely Samsong》 and Their Related Everyday Practic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6(2), 76-112.
- Kim, S.(2010). Audience studies' decoding model and a reappraisal of John Fiske : Towards a critical reflection on Korean audience studies and open debates. *Media & Society*, 18 (1), 2-46.
- Kim, S.Y.(2020. 9. 25). [Kim Sun young's drama-topia] "Today's Faces" in the youth drama.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1/17/21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50300005&code=990100
- Kim, Y.I.(2017). *The feature and the meaning in genre dramas/films by the korean youth · employment*

- generation.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S.-N., Won,Y.-J.,&Jung,H.-W.(2005). A Study on Viewers' Perceptions of TV Drama : The case of <a Mermaid>.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2), 60-104.
- Ko, K.S.(2020. 3. 13). "Challenging Youth" ... 'Itaewon class', which stole viewers' hearts. *The Hankook Ilbo*. Retrieved 11/19/20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21614067955>
- Lee, J.S.(2014). The Relation between Law Enactment and Revision, and the Boss-Subordinate Relationship and Rising Generation's Problem Reflected by TV Dramas and Webtoons. *Cineforum*, 18, 309-343.
- Lee, O.-H.(2002a). Audiences' agency over media text and its limitations : Focusing on Can't Take My Eye Off You.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6-4, 206-245.
- Lee, O.-H.(2002b). A Television Drama Audience Research : Focusing on the Function of Polysem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6- 6, 96-126.
- Ministry of Education(2019. 8. 26). <Press release - The first 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school violence survey in 2019>. Retrieved 12/3/20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Modleski, T.(1982).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London: Methuen.
- Na, E.H.(2015). *Narrative, myth and meaning structure of drama <Mi-Sang> , an incompleted life : a semiotic analysis on the drama <Mi-Sang> .*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Na, M.(2005). A Critical Review on Ethnographic Audience Studies. *Communication Theories*, 1(2), 68-105.
- Park, C.J.(2016). *Younger generation's meaning-making and interpretive position on labor : focused on TV drama <Misaeng> .*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K.(2007). Reading Patterns for Media Text with Religious Symbolism : Diverse Responses to TV Serial "Wang-kkot Seon-nyeo-ni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1(6), 381-410.
- Park, M.J.(1991). Pleasure, resistance, ideology.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13(2), 67-95.
- Park, M.J.(1992). *A Study on the Pluralistic Function of Pleasure Produced by TV Drama*. Seoul: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 Ryu, S.Y.(2020. 8. 31). Be fascinated by 'unnice' characters. *LE MONDE. diplomatique*. Retrieved 12/10/20 from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0>

- Seo, Y.-J.(2019). Aspects of emotional customs by the N-po generation.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5(1), 55-85.
- Song, A.H.(2018). *Young generation, media representation and its correlations : a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es on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of tv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A.-H. & Baek, S.G.(2018). Young Generation, Media Representation and Its Implications : a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es on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of tv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146-160.
- Wikimedia Foundation, Inc.(n. d.). First Love (Television drama in 1996). Retrieved 10/16/20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B2%AB%EC%82%AC%EB%9E%91_\(1996%EB%85%84_%EB%93%9C%EB%9D%BC%EB%A7%88\)](https://ko.wikipedia.org/wiki/%EC%B2%AB%EC%82%AC%EB%9E%91_(1996%EB%85%84_%EB%93%9C%EB%9D%BC%EB%A7%88))
- Wikimedia Foundation, Inc.(n. d.). Gaslighting. Retrieved 20/3/21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A4%EB%9D%BC%EC%9D%B4%ED%8C%85>
- Yang, J.-H.(2002). Limitations of Reflexive TV Viewing : An Audience Study of Korean History Dram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6(1), 268-299.
- Yang, S.-G.(2016).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Words and Image in Dramas: Focused on Misaeng (2014). a Television Drama. *Journal of humanities*, 73(2), 13-37.

최초 투고일 2020년 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3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1년 3월 31일

부록

- 고경석(2020. 3. 13). “도전하는 청춘” … 시청자들 마음 훑친 ‘이태원 클라쓰’. 〈한국일보〉.
Retrieved 11/19/20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21614067955>
- 교육부(2019. 8. 26). 〈보도자료 -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Retrieved 12/3/20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굿데이터코퍼레이션(2020). TV화제성 지수. Retrieved 10/16/20 from <https://m.post.naver.com/cherrypk1>
- 김명혜(2006).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대한 여성 수용자의 해독과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76-112.
- 김미라(2015).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 웹툰 〈미생〉의 드라마 〈미생〉으로의 재매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130-140.
- 김선남·원용진·정현욱(2005). 드라마 〈인어 아가씨〉 시청자의 해독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60-104.
- 김선영(2020. 9. 25).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 청춘드라마 속 ‘오늘의 얼굴들’. 〈경향신문〉. Retrieved 1/17/21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50300005&code=990100
- 김수정(2010). 수용자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수용자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열린 논쟁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 (1), 2-46.
- 김영인(2017). 〈청년·취업세대 드라마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 드라마 〈미생〉·〈송곳〉, 영화 〈10분〉·〈오피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17). 현실과 환상을 가로지르는 콘텐츠의 재매개화 : 〈미생〉의 재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1권 1호, 147-174.
- 김정선(2012).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수용자 해독 연구.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10권 1호, 86-123.
- 김지현(2018). 〈TV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에 나타난 젠더 표현 양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미수(2005).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국내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68-105.
- 나은희(2015).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연(2020. 8. 31). '착하지 않은'주인공에 매료되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Retrieved 12/10/20 from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0>
- 박명진(1991). 즐거움(pleasure), 저항, 이데올로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권 2호, 67-95.
- 박명진(1992). <TV드라마가 생산하는 '즐거움(PLEASURE)'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방송문화진흥회.
- 박진규(2007). 미디어 텍스트 속 종교상징에 대한 해독 연구 : 일일드라마 <왕꽃선녀님>에 대한 다층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381-410.
- 박찬주(2016).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대한 의미생산과 해석적 위치 :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진주(2018). <1인 가구 사회 현상, 미디어 재현, 문화적 의미 : TV 드라마 <혼술남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과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연주(2019).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25(1), 55-85.
- 송아현(2018). <청년세대와 미디어 재현의 상관성 연구 : TV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대한 기호학·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아현·백선기(2018).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위기: TV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대한 기호학·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1), 146-160.
- 안호천(2020.12.30.) 카카오페이지, 다음웹툰 1000만 영화 대신 2000만 웹툰. <전자신문>. Retrieved 1/17/21 from <https://www.etnews.com/20201230000016>
- 양승국(2016). 드라마에서 언어와 이미지의 구조와 작동원리 : 텔레비전드라마 「미생」(2014)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제73권 제2호, 13-37.
- 양정혜(2002). 성찰적 TV수용의 한계: 남녀 집단간의 여인천하 해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268-299.
- 이오현(2002a).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힘과 그 한계 : 일일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사례 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4호, 206-245.
- 이오현(2002b).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연구 : 다의성(polysemy)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 제46- 6호, 96-126.

- 이종승(2014). TV드라마·웹툰에서 반영된 갑을관계/청년세대 문제와 법제(개)정의 관계. <씨네포럼>, 통권 제18호, 309-343.
- 임영호·강주현·이동희(2012). 새터민 여성들의 드라마 시청과 젠더 담론 수용. <미디어, 젠더&문화>, 23호, 143-176.
- 임종수(2010).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언론정보연구>, 47권 1호, 77-120.
- 전승현(2020. 3. 12). 2030은 왜 '이태원클라쓰'에 열광할까. <THEPR>. Retrieved 10/16/20 from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63>
- 정덕현(2020. 11. 14). 《이태원 클라쓰》로 보는 '드라마x웹툰'의 시너지. <시사저널>, 1622호. Retrieved 11/17/20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42>
- 정시우(2020. 10. 28). 이태원 클라쓰와 청춘기록이 그려낸 청춘의 얼굴. <GQ>. Retrieved 1/17/21 from http://www.gqkorea.co.kr/2020/10/28/%ec%99%80-%ec%9d%b4-%ea%b7%b8%eb%a0%a4%eb%82%b8-%ec%b2%ad%ec%b6%98%ec%9d%98-%ec%96%bc%ea%b5%b4/?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 정영희(2007). <내 이름은 김삼순>에 대한 수용자의 현실적 공감과 즐거움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32-57.
- 정영희(2020).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132-166.
- 정영희·장은미(2015). 흔들리는 젠더, 변화 중인 세상 :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3호, 153-184.
- 주창윤(1998). 텔레비전 드라마의 해석적 위치. <한국언론학보>, 42권 4호, 163-199.
- 하재근(2020. 12. 29). [하재근의 족집게로 문화집기] 임영웅, 트롯맨... 올해 키워드들. <디지털 타임즈>. Retrieved 1/17/21 fro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3002102269660002
- 한희정·신정아(2019).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제한 조선족의 수용과 인식. <한국소통학보>, 제18권 제1호, 227-262.
- 홍경수(2019). 드라마의 주된 언어 사용이 지역출신 청년의 감정, 인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 tvN 드라마 <톱스타 유백이> 사용자 심층인터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9호, 366-375.
- 홍지아(2010). 순정만화적 감수성을 통한 즐거움의 체험 :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시청 경험을 중

-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 3호, 255-296.
- 황소영(2020. 3. 12). '이태원 클라쓰' 인기 중심엔 '4050 남성'이 있다. <일간스포츠>. Retrieved 10/16/20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728188
- Ang, I.(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박지훈 (역)(2018). <델러스 보기의 즐거움>. 파주: 나남.
- Modleski, T. (1982).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London: Methuen.
- Wikimedia Foundation, Inc.(n. d.). 첫사랑 (1996년 드라마). Retrieved 10/16/20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B2%AB%EC%82%AC%EB%9E%91_\(1996%EB%85%84_%EB%93%9C%EB%9D%BC%EB%A7%88\)](https://ko.wikipedia.org/wiki/%EC%B2%AB%EC%82%AC%EB%9E%91_(1996%EB%85%84_%EB%93%9C%EB%9D%BC%EB%A7%88))
- Wikimedia Foundation, Inc.(n. d.). 가스라이팅. Retrieved 20/3/21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A4%EB%9D%BC%EC%9D%B4%ED%8C%85>

청년세대의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 연구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공감과 재미 요소를 중심으로

홍경수

(이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재미와 공감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수용자의 감상문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감상문은 총 2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1단계에서는 총 72명의 학생에게 드라마에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이들은 18개의 팀으로 나뉘어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감상문을 제출하였고, 이들의 공통된 답변은 심도있는 응답을 받기 위한 2단계 분석의 질문으로 활용되었다. 2단계는 1단계 참여자 중에서 2단계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총 21명). 분석 결과, 청년들은 <이태원 클라쓰>를 ①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②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③ 실제 경험과 연결된 감정의 내면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를 향한 주제와 메시지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이태원 클라쓰>가 부조리한 기성세대의 인습을 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응징하는 성장 서사의 틀을 갖추며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보호받지 못한 청년세대의 상실감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변하여 응징이라는 서사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에서, 청년이 기성세대의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대신에 또래의 연대를 통해 창업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지와 성원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소수자 감성과 다양성 옹호라는 특징은 청년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인 소수자로서의 감성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드라마의 서사를 단지 판타지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실제 현실과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 사이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줄다리기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담아내는 드라마에 공감하며, 주제적으로 드라마를 수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드라마 연출의 총체성에 대한 호응’ 측면은 웹툰의 실사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실사화 거부 정서, 체험 가능한 현실 장소의 활용, OST를 통한 청각적인 상호작용 효과, 청년세대의 소통 미디어 적극 활용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드라마 연출자의 치밀한 수용자 포섭 전략에 수용자들이 기꺼이 응답한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은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실제 경험과 연결하여 감정적으로 내면화’하였다. 그 내용은 경험적·정서적 차원의 공감과 감정이입, 현실 경험과 거리감, 세대 안의 공명 반응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20대 수용자들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교폭력과 불공정한 처분, 아르바이트 구직과 노동 과정에서 ‘갑질’이라는 실제 경험이 떠올라서 공감할 수 있었으며, 일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현실 경험과 차이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드라마와 웹툰을 접하면서 ‘우리 세대의 문화’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세

대 안에서 발생한 텍스트에 대한 공명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세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청년들의 현실적 위치와 문화적 감수성에 기초한 그들만의 드라마 수용방식, 즉 청년들은 드라마를 단지 허구의 판타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참조하는 텍스트로서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드라마의 웹툰 원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두 텍스트간의 긴장 속에서 웹툰의 자율성이 점점 커져가는 쪽에 수용자들이 판정승을 선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태원 클라쓰〉는 원작자가 드라마 대본을 썼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원작과의 차이가 적었고, 이 점이 드라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원본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해온 수용자의 인식이 증가하여 원작의 경전화 경향은 커져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드라마 제작에서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더 활발하게 영상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드라마 제작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을 염두에 둔 복합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구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핵심어 :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 분석, 청년 세대, 웹툰 원작 드라마, 복합화 전략